

‘열어 봐! 느껴 봐!’

6개 종교 청년 평화캠프

종교청년대화모임 평화교리가 일 반 청년들간의 종교간 대화와 평화 의 장을 넓히기 위해 종교청년한마 당 평화세앗 2기 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열어 봐! 느껴 봐!’ 를 주제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 교 천도교 유교 등 6개 종교 28세 이 하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8월 17 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홍천 금강 선원에서 열린다.

캠프에서는 △마음으로 듣는 강 연 △함께 하는 각 종단별 의식 경 험 △공동체 놀이(뭉개우기, 도전 골든 징) △너와 돌이서(다툼의 소 통, 진리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간 이해와 대화를 중심으 로 일반 종교인들간의 연대와 우 의 를 나눌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9월 1~3일 금강산 신계사

제2차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가 9 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금강 산 신계사에서 열린다.

남측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공동주 최로 열리는 법회는 2일 금강산 신 계사에서 합동법회와 조별별 분자 들과 점심 공양, 금강산 및 해금강 합동 구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된다.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은 “합동 법회 동참은 평화통일 주춧돌을 놓 는 일”이라며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02)733-7277 남동우 기자

동국대 해외의료봉사단

스리랑카서 14일간 활동

동국대 경주캠퍼스 해외의료봉사 단이 8월 8일부터 21일까지 14 일간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 및 문 화교류 활동을 펼친다. 봉사단은 김 용택 부총장을 단장으로 학생들과 의료진, 교원들로 구성됐다.

이번 스리랑카 봉사활동에서는 의과학대학생을 포함한 의료진의 양 · 한방 의료봉사와 한국음악과 학생의 국악공연, 불교이동학과 학생 의 영 · 유아놀이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7월 24일 중국 난카이(南開) 대학과 교 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 주캠퍼스 신학협력단이 난카이 대 학의 국가고과기산산업연구를 방문해 이뤄진 것. 이에 앞서 경주캠퍼스는 북경화공대학 북방학원을 방문해 양교간 교류 증진에 합의했다. 남동우 기자



김홍식 불교중앙박물관 전문위원이 유물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중성지인 한지를 펼쳐 보이며 참관단들에게 한지의 장 점을 설명하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 들어가 보니...

시설 · 보존 환경 수준급

“규모는 작지만 시설이나 유물 보존환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 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내년초 개관 예정인 불교중앙 박물관이 8월 9일 먼저 지하3층 수장고부터 선을 보였다. 안내를 맡은 김홍식 전문위원이 육중한 수장고 문을 열자 유물보존을 위 해 적절히 맞춰 놓은 온 · 습도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온이 먼저 참 관자들을 감쌌다.

아직 유물들이 많이 이관되지 않아 장식장이 군데군데 비어 있 었지만, 귀중한 성보문화재들이 은거(?)하기엔 최적의 조건이었 다. 장식장 바닥도 유물 이동시 걸 림을 방지하기 위해 100% 세로 판으로 만들었다.

또한 장식장 면도 통판을 사용 하면 더운 여름 갈라지거나 비를 어 질 수 있음을 고려해 적절하게 잘라서 깨어 맞췄다.

김 위원은 “이 수장고에는 황은 함습도가 24시간 내내 가동돼 항상 문화재 보관에 이상적인 조 건인 습도 60%내외, 온도 18~20 °C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식장도 벽에서 30% 정도 틈을 두어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공 기만 내부로 들어오게하는 특수 장치를 해놓아 성보문화재 보관에 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랑했다.

이곳에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에서 이관된 ‘금

동여래좌상’ 등 ‘수장사 부모 출 토유물’(보물 제259호) 26점이 보 관돼 있다.

또 동국대박물관에서 온 ‘지정 4년명 고려청동은항로’(보물 제 321호), ‘고려사경’(보물 제390 호) ‘석씨원류유물(사적책판’(보 물 591호) 등 635점도 전시할 곳 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다.

100여명 규모에 총 750점이 보 관돼 있는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 는 현재 3개의 창고와 전시 및 포

100여명 규모 750점 보관

전문가 20여명 관리 · 연구

전시실 공사 후 내년초 개관

장 해체실로 이뤄져 있다. 앞으로 보존처리실까지 갖출 예정이다.

우선 제 1수장고(16.72평)에는 김포 약사사석조불좌상과 같이 온 · 습도에 민감하지 않은 석조 와 기와류 등이 보관돼 있다.

또한 바로 옆 제 2수장고(28.18 평)에는 ‘영국사 영산회상탱’(보 물 1397호)을 비롯해 ‘광덕사 고 려사경’(보물 390호) 등 회화 및 전적과 같은 지분류가 있다.

가장 크기가 큰 제 3수장고 (50.62평)에는 ‘봉은사지 정사년 명 고려청동항로’(보물 321호)와 신원사리기 등 금속이나 목재로

만들어진 불상이나 공예품들이 들어 있다.

최근 불교중앙박물관 수장시설 에 성보문화재들이 속속 이관되 면서 성보문화재 관리에 대한 교 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주완 문화부 문화재팀 행정 관은 “이 수장고는 박물관이 갖춰 지지 않은 사찰의 성보문화재를 기탁보관해주는 역할을 최우선으 로 한다”며 “처음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스님들이 훗수 피 해로 문화재가 심하게 훼손되자 사찰 문화재를 이관하려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의 문의 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성보문화재의 관리 책임을 맡 고 있는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 님은 “과거에 이미 기탁한 상태지 만 관리 능력이 없어서 이관을 유 보시켰던 성보문화재들을 이제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찾아오고 있는 중”이라며 “박물관 학예연 구실과 총무원 문화부 등에는 전 문가 20여명이 있어 성보문화재 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심층적 인 연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공사이권에 따른 각 종 의혹 제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박물관 개관이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전시실을 마무리하면 내년 초에는 꼭 개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북녘 수재민 돕기 나섰다

정토회, 위령재 봉행... JTS, 구호품 보내

남한 수재민 구호에 앞장섰던 불 자들의 정성이 북녘의 수재민들에 게도 전해진다.

수행공동체 정토회는 8월 8일 서 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 마산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지난 집 중후호로 목숨을 잃은 남북한 수재 민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위령 재를 봉행했다.

정토회는 위령재에서 “수해로 목 숨을 잃은 남북의 희생자들과 고통 받고 있는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아픔과 갈등을 넘어 남북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 도한다”고 발원했다.

정토회 산하 한국JTS는 북한 수

재민들을 위해 밀가루 100톤, 신발 2만켤레, 의약품 6박스, 이불 1만채 등 1억7천만원 상당의 3,4차 긴급구 호품을 8월 9일과 10일 북한행 선박 에 선적했다.

인천항과 중국 당동항을 통해 북 송된 구호물품은 남포와 신의주로 입항해 평안남도 신양군, 성천군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배포 된다.

한국JTS는 북측 조선해외동포연 호위원회를 통해 8월 16일께 5차 구 호물품으로 의약품을 지원한다. 조 계종 총무원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도 의류, 신발 등 생활용품을 긴급 모집,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지자체장 종교중립운동’ 추진

조계종 종평위, 서약서 받기 실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직자 정 교분리와 종교중립 준수를 위한 서 약서를 받는 운동이 추진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8월 8일 16개 광역단체장 과 230개 기초단체장에게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과 공직자 정교분 리 · 종교중립 준수를 위한 2006 광 역 · 기초단체장 선언문”을 발송하 고, 이달 21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언문은 국민의 대표로 서 청렴한 국정운영과 헌법에 명시 된 정교분리 · 종교중립을 준수한다 는 서약을 담고 있다.

종교평화위는 “선언운동은 국민 의 대표로써 소신을 밝히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임을 천명하는 의미 있 는 일”이라며 “회신 여부와 결과물 실명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박봉영 기자

백천사, 교각 스님 기념 축제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가 교각 스님 탄생 1211년을 맞아 ‘제9회 김 교각 스님 추모 헌다례’와 ‘제2회 지장왕보살 큰 축제’를 개최한다.

8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이번 ‘지장왕보살 큰 축제’는 ‘구화 산의 신화, 김교각 스님’ 다류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수효사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백천다경회의 헌다례, 산놀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교각 스 님 행장 및 지장보살사상을 퀴즈로 풀어보는 퀴즈잔치도 열릴 예정이 다. 행사 종료 후에는 김교각기념관 관람이 가능하다.(031)577-6433 이은비 기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3일(음 7월 10일) 현생의 인연을 마감한 소생의 아버지 松溪堂 林盛秀 居士의 영면을 기원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芾花를 보내 위로해 주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기림실장 동선 스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 불교신문사 장항석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승정 스님, 현대불교신문협회장 수원 스님, 동국대 흥기삼 총장님을 비롯한 불교계 어른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접 찾아뵈 지 못하고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리는 점 惠諒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0년 8월

현대불교신문사 편집 · 취재 부장 임연태 합장

월정사, 관음사 포교당 직영

강릉 관음사 포교당이 평창 월정 사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월정사측은 “8월 8일 관음사에서 열린 백중 법회에서 월정사 주지 정 녘 스님이 관음사 포교당을 월정사 직영으로 전환하고, 주지에 적선 스 님을, 부주지에 무주 스님을 각각 임 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월정사 제10기 단기출가학 교가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0일 동안 대학생 및 일반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원주 구룡사, ‘육회당’ 기공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에 템플스 테이 전용공간이 건립된다.

구룡사는 8월 8일 300여명의 사 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템플스테 이 전용공간인 ‘육회당’ 신축 기공 법회를 봉행했다. 육회당은 51명 규 모로 11개의 속소 및 문화체험공간 으로 조성된다. 내년 2월 말 완공 목 표로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강남 봉은사 운영

중앙승가대서 맡아야”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화(회장 정년 · 월정사 주지)가 서울 봉은사 를 중앙승가대 운영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총동문화는 “8월 9일 150여명의 화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중앙승가대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서울 봉은사를 운 영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 기로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범산 스 님이 맡고, 총동 문화의 11명이 상 임위원으로 구성됐다.

대책위원회는 지정 요청 건의서 를 통해 “현재 학교예산의 58%에 해당하는 18억 8000만원을 종단에서 문화재관리료사찰 특별부담금으 로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재관리료 존폐문제도 종단에서 지원하는 예 산지원문제를 검토할 단계에 와 있 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원회 총무간사 공은 스님 (서울 개운사 주지)은 “총동문화 회 원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 동을 벌이고,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중앙승가대 이사장이신 지관 스님 을 빙고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 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생전 예수재 · 호마기도 · 보살계

생전 예수재

▶ 입재 · 외향 초청 큰스님



주법 큰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개운사 회주
 •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 회주
 •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보각 큰스님
 • 사회복지법인 자재공덕(현) 이사장
 •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장



무전장 큰스님
 • 동국대 불교대 강사
 •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장
 • 현 동국대 불교대학 명예교수



정락 큰스님
 • 조계종포교원 원장 역임
 • 만의사 회주스님
 • 용주사 율주스님(현)



예수재 외향 범주 동주 큰스님의 11명
 • 조계종이장 무명문화재 제50호
 • 명산계 전수 조교
 • 기암동 흥원사 회주

◆ 입재 : 8월 24일 목요일 ◆ 초제 : 8월 31일 목요일 ◆ 2제 : 9월 7일 목요일 ◆ 회향 : 9월 14일 목요일 ◆ 9월 14일 목요일

입재일 | 2006년 8월 24일 목요일 (음력, 윤, 7월 1일) **오전 9시 대웅전**
회향일 | 2006년 9월 14일 목요일 (음력, 윤, 7월 22일) **오전 9시 대웅전**

귀의 삼보 하시옵고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기 원합니다.

저희 개운사에서는 병술년 윤7월을 맞이하여 이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위해 **생전예수재와 호마기도 및 보살계**를 봉행합니다.

예수재는 일반적으로 윤달에 봉행하는데, 이는 사람이 죽은 뒤에 지내는 49세를 살아생전에 미리 지내는 제인 바, 전쟁에 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업과 빛을 갚음과 동시에 그 업장을 소 멸하고 또 죽은 뒤에 지낼 계를 미리 지내서 죽은 뒤에 지옥 에서 받아야 할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는 덕을 베풀어줌과 동시에 자손이 장 성하고 가세가 화평하며 재액이 소멸하고 무병장수하는 등의 기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평화와 자신의 소원성취 및 잃은 해탈을 기원하는 호마기도와 이 생애 지은 죄업 때문에 지금도 지옥 에서 고통받고 있을 선망 부모와 일가친척 및 인연있는 영가 를 천도하는 지장기도를 21일간 봉행하오니, 모두들 함께 동참하여 무상의 선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보살계 수계법회

호마기도

2006년 8월 24일 목요일
 (음력, 윤, 7월 1일) **오전 10시 대웅전**
 ● 기도비 : 1인 1만원

2006년 9월 12일 화요일
 (음력, 윤, 7월 20일) **오전 9시 대웅전**
 ● 수계비 : 1인 2만원

※ 법명이 없으신 수계자는 중무소로 문의 해주세요.

보살계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나가는 출가와 재가보살이 받아 지 켜야 할 실천덕목이다.
 (보살계본지범요기)에 보면 “보살계는 생사의 타 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일심의 본원으로 되돌아가 는 큰 나무의 구실을 하며, 샅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이루는 요긴한 문이다.”라 하였다.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행해지는 것은 범망게로서 ‘10중계(十重)’와 ‘48경계(四八)’로 보살계를 삼는다.

2006년 8월 24일 목요일
 (음력, 윤, 7월 1일) **오전 10시 대웅전**
 ● 기도비 : 1인 1만원

호마는 ‘지혜’의 불꽃으로 ‘번뇌’의 재물을 태운다 고 하여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기 위한 의식이 되었다. 밀교 경전인(대일경(大日經))에는 외(外) 호마와 내(內)호마가 있다.

외호마는 실제로 호마단을 설치하고 호마목 · 오품 음식 등의 재물을 화천(火天:불이 신격화 된것)에 공양함으로써, 번뇌의 소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事)호마라고도 한다.

내호마는 여래의 지화로써 무명 · 번뇌의 재물을 소 진시키는 것을 ‘내관(內觀)’ 하는 것이므로 이(理)호 마라고도 한다. 그런데 호마는 기원목적에 따라 식 계(息災: 재난의 제거) · 증익(增喜: 행복의 조래) · 조복(調伏:악마를 굴복) · 경애(敬愛:행 · 보살을 찬 만)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의식을 행할 때는 본존 으로서 부동명왕(不動明王) · 애염명왕(愛染明王) 등을 안치하고, 그 앞에 호마단을 둔다.

진실하는 방법은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108번뇌 · 육바라밀(波羅蜜) 등을 상징하는 공양구 등을 배치한다. 따라서 호마법을 닦으면 번뇌를 모두 소진하고 6바라밀의 공덕을 쌓는다고 한다.

호마기도는 호마나무에 각자의 생사와 소원을 적어 부처님께 올리어 소각한다.

대한불교조계종 개운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02)926-4069, 02)924-3841